



# COVID-19 범유행 시기 일반병동 간호사의 피로도와 전문직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정현선<sup>1</sup> · 신기수<sup>2</sup>

<sup>1</sup>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간호사, <sup>2</sup>중앙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The Correlation Between Fatigue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mong General Ward Nur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ung, Hyun-Sun<sup>1</sup> · Shin, Gisoo<sup>2</sup>

<sup>1</sup>MSN,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sup>2</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Purpose:** The new infectious disease, COVID-19, is not over yet. The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fatigue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mong nurses in general ward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ethods:** A cross-sectional design was used targeting 138 nurses in a tertiary general hospital located in Chungcheongnam-do from November 1 to 3, 2020. **Results:** The average age of the participants was 30.64 and the score of fatigue was 3.27. For the scores of subscales of professional life quality were 31.41 for compassion satisfaction, 27.12 for compassion fatigue, and 29.43 for burnout. The scores of fatigu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ompassion fatigue and burnout.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egion and sample to investigate COVID-19 related fatigue and quality of professional life in nurs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ek interventions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professional life for nurses.

**Key Words:** COVID-19, Nurse, Fatigue,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2019년에 발생한 COVID-19는 2023년 2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누적사망률 약 668만 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다[1]. 신종감염병 COVID-19 발생 초기에는 치료제나 예방백신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간호사들은 COVID-19 대응의 핵심인력으로 COVID-19 감염 환자를 간호하였다[2]. 특히, 외부인들

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경우는 이전 간호업무와 달리 COVID-19 감염통제 및 감시, 방문객 관리, 기록지 작성, 상주보호자 증상감시를 비롯하여 가족, 간병인과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COVID-19 감염 예방에 대한 수시교육을 추가 실시하였다[3]. 간호사들은 또한 COVID-19 감염에 대하여 불안 호소하는 입원환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였고, 면회객 제한에 따른 환자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함으로 가중된 간호업무를 수행하였다[4]. 나아가 COVID-19에 감

**주요어:** 코로나19, 간호사, 피로도, 전문직 삶의 질

\* 이 논문은 제1저자 정현선의 석사학위논문 의 축약본임

IRB 승인기관 및 번호: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IRB No: 2020-09-027-002]

Corresponding author: Gisoo Shin (<https://orcid.org/0000-0001-5508-6065>)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eoul 06974, Republic of Korea

Tel: 82-2-820-5975 Fax: 82-2-824-7961 E-mail: gisoo@cau.ac.kr

Received: 9 February 2023 Revised: 2 May 2023 Accepted: 2 May 202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Derivs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 If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retained without any modification or reproduction, it can be used and re-distributed in any format and medium.

염된 환자들을 간호함에 따라 직접적인 COVID-19 감염 노출 위험이 증대되었고 수시로 바뀌는 COVID-19 치료 및 관리지침에 따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피로의 개념은 통상적으로 소진과도 같은 선상에 위치하여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피로는 자극요인에 의하여 유발되는 내적 상황으로 자극요인이 제거여지면 빠르게 회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소진은 불합리한 업무 환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를 의미한다[6]. 이러한 소진은 인력 부족 등의 요인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근로 환경에서 좀 더 발생하기 쉬우며, 특히,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소진은 전문직 간호사로서 기대하고 있는 삶의 질과 현실 환경 간의 불일치가 주요 발생 요인이 밝혀졌다[7]. 무엇보다 COVID-19 범유행 시기 일반병동 간호사들의 소진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상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필요 인력으로 교대 투입되었고 또한, 중환자실 경험 없이 COVID-19 중증 환자 격리병동에 파견되었기 때문이다[8].

한편, Stamm이 제시한 전문직 삶의 질은 타인을 돌보는 전문가들의 직업과 관련된 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사들에게 있어 전문직 삶의 질은 간호업무 환경에서의 일과 개인 삶의 균형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끼는데 필수 요소로 작용한다[9]. 전문직 삶의 질은 긍정적 측면인 공감만족과 부정적 측면인 공감피로 및 소진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호사가 인지하는 공감만족은 환자가 호소하는 고통에 대하여 공감하고 돕는 역할을 함에 있어 즐거운 감정을 의미한다[10]. 반면에, 공감피로는 환자를 돕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정적인 정서로 소진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11]. 이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소진을 직업 관련 현상이자 질병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는데, 환자와의 밀접한 관계가 요구되는 간호사에게서 피로에 따른 소진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12]. 더욱이 COVID-19 감염 장기화로 간호사들의 소진도 누적됨에 따라 그들의 전문직 삶의 질 저하를 비롯한 간호사 수급의 구조적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었다[13].

그러나 공감만족은 공감피로 또는 소진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문직 간호사로서 임상 수행 능력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10], COVID-19 범유행 상황에서의 일반병동 간호사들의 공감만족, 공감피로 및 소진의 정도를 식별하는 것은 중요하다[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VID-19 범유행 시기의 상급종합병원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COVID-19 관련 업무에 따른 피로도 정도와 전문직 삶

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그들의 피로도와 전문직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일반병동 간호사들의 소진을 증재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범유행 시기 동안 일반병동 간호사들이 COVID-19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관련된 피로도와 전문직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함이다.

##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COVID-19 범유행 시기 일개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된 일반병동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COVID-19 관련 업무에 따른 피로도 정도와 전문직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일개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된 일반병동 간호사들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는 G\*power version 3.1.9.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 )=0.05, power( $1-\beta$ )=0.80, 중간효과 크기( $f$ ), 15, 그리고 임상연구에서의 일반적인 탈락률 10%[15]를 근거로 하여 총 158명이 산출되었다.

###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0년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시행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간호부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와 협조를 구하였으며, 이후 해당 병동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를 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배포 및 작성이 이루어졌다.

###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해당 기관인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생명윤리위원회(No. 2020-09-027-002)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후 자발적인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연구 참여 동안 언제든지 참여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참여 철회 후에도 그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연구 자료는 부호화하여 통계처리함으로써 익명성이 유지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연구 종료 후 생명윤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이후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 5. 연구 도구

### 1) 피로도

피로도는 Gu[16]의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39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97$ 이었다.

### 2) 전문직 삶의 질

전문직 삶의 질 도구는 Stamm[9]이 개발한 전문직 삶의 질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ProQOL)도구의 한국어판 공개버전 5를 사용하였다. 전문직 삶의 질 도구의 하부영역은 공감만족 10문항, 공감피로 10문항 및 소진 10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각 하위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만족이 높거나 공감피로 또는 소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8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90$ 이었다.

## 6.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6. version을 이용하였으며, 대상자 총 158명 중 설문 응답 누락을 제외한 138명의 자료를 본 연구결과에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피로도 및 전문직 삶의 질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삶의 질 차이는 Independent t-test, 또는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하였다. 대상자의 피로도와 전문직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다.

## 연구 결과

### 1.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삶의 질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0.64 \pm 7.31$ 세이었으며, 현재 병동에서의 근무경력 2년 이상 5년 미만인 39.9%(55명)로 가장 많았다. 병동에서의 COVID-19 관련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42.82 \pm 5.23$ 시간이었으며, 대상자의 58.7%(81명)가 COVID-19로 인해 업무의 양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삶의 질 차이에 있어 공감만족은 결혼 상태( $t=2.17, p=.034$ )와 직책( $t=-2.91, p=.004$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공감피로는 현재 병동 근무경력( $F=3.08, p=.030$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진에서는 대상자의 직책( $t=2.17, p=.032$ )과 근무부서( $F=3.15, p=.046$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1).

### 2. 피로도 및 전문직 삶의 질정도

본 연구의 대상자의 피로도는 평균  $3.27 \pm 0.68$ 점이었으며, 전문직 삶의 질 평균점수에서는 공감만족  $31.41 \pm 5.96$ 점, 공감피로  $27.12 \pm 6.48$ 점, 그리고 소진  $29.43 \pm 4.53$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 3. 피로도와 전문직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피로도는 전문직 삶의 질 하부영역인 공감피로( $r=.392, p<.001$ )와 소진( $r=.325, p<.001$ )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공감만족은 소진( $r=-.482, p<.001$ )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공감피로는 소진( $r=.376, p<.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 논 의

본 연구는 2020년 COVID-19 범유행 시기 상황에서 일반병동 간호사들의 피로도와 전문직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의 과반수가 병동에서 COVID-19 관련 감염관리 업무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COVID-19는 신종감염병으로 국내에서는 2020년 대구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일상생활을 포함한 의료환경에서도 급작스러운 변화들을 초래하였다[4].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겪는 가장 큰 변화는 수시로 변경되는 감염관리 지침에 따른 대응과 예기치 못한 COVID-19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대처가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간호사들의 육체적, 신체적 피로가 가중되었다고 보고하였다[17]. 본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피로도 정도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중증도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COVID-19 범유행 시기 이전에 국내 일반병동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로 측정하여 제시한 선행연구결과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021년 국내 대구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보다는 낮았으며[18], 2020년 국외 병동 간호사들의 피로도를 측정한 연구결과[19]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의 피로도는 SARS와 MERS 같은 신종감염병 유행 시기의 간호사들의 높은 피로도 수준과 유사한데[17], 이는 신종감염병 발생이 재난적 상황과 동일시 되기 때문이다[2].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면 간호사들은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감염 환자들을 직접 간호하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며 이는 피로도도 이어진다[20]. 특히, COVID-19 범유행 시기 일반병동 간호사들의 경우는 입원환자에 대한 면회 제한으로 입원환자와 보호자와의 중재 업무를 추가 수행하고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인력으로 수

**Table 1.**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Differences of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8)

Variables	Categories	n (%)	M±S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Compassion satisfaction		Compassion fatigue		Burnout	
				M±SD	t/F (p)	M±SD	t/F (p)	M±SD	t/F (p)
Age (year)	20~29	86 (62.4)	30.64±7.31	31.02±5.52	2.99 (.053)	26.55±7.00	0.88 (.417)	29.62±4.65	1.40 (.249)
	30~39	34 (24.6)		30.74±6.80		28.09±5.07		29.82±3.73	
	over 40	18 (13.0)		34.56±5.65		28.00±6.23		27.78±5.17	
Marital status	Single	97 (70.3)		30.62±5.23	2.17 (.034)	26.18±6.16	2.68 (.753)	29.60±4.52	-0.67 (.499)
	Married	41 (29.7)		33.29±7.11		29.34±6.74		29.02±4.58	
Religion	Yes	40 (29.0)		32.30±6.04	1.12 (.265)	28.70±5.93	1.85 (.066)	29.33±5.16	-0.16 (.866)
	No	98 (71.0)		31.05±5.92		26.47±6.61		29.47±4.28	
Educational status	Associate	14 (10.1)		26.79±4.63	1.76 (.176)	26.79±4.63	0.15 (.858)	29.14±5.46	0.90 (.408)
	Bachelor	108 (78.3)		27.04±6.81		27.04±6.81		29.67±4.21	
	≥Master	16 (11.6)		27.94±5.72		27.94±5.72		28.06±5.70	
Clinical experience (year)	≤1	46 (33.3)		31.17±6.11	0.10 (.959)	26.09±5.53	3.08 (.030)	28.87±4.91	0.84 (.476)
	2~5	55 (39.9)		31.31±4.96		26.20±6.61		29.24±4.74	
	6~10	26 (18.8)		31.81±6.75		29.31±7.09		30.42±2.90	
	≥11	11 (8.0)		32.00±8.37		30.82±6.21		30.36±4.53	
Position	Staff nurse	123 (89.1)		30.91±5.81	-2.91 (.004)	27.02±6.45	-0.47 (.636)	29.72±4.36	2.17 (.032)
	Charge nurse	15 (10.9)		35.53±5.68		27.87±6.84		27.07±5.34	
Department (ward)	Internal medicine	48 (34.8)		32.17±6.28	2.37 (.097)	26.25±5.98	0.67 (.515)	28.77±4.36	3.15 (.046)
	Surgery	54 (39.1)		30.06±5.57		27.67±7.16		30.61±4.27	
	Comprehensive care unit	36 (26.1)		32.44±5.85		27.44±6.08		28.53±4.86	
Increasing workload related to COVID-19	Yes	81 (58.7)		31.16±6.01	-0.59 (.555)	27.77±6.50	1.41 (.161)	29.95±3.94	1.63 (.106)
	No	57 (41.3)		31.77±5.91		26.19±6.38		28.68±5.20	
Working hours per week related to COVID-19	<42.82	46 (33.3)	42.82±5.23	31.11±5.73	0.65 (.520)	26.86±6.06	0.49 (.626)	29.72±4.76	-0.80 (.423)
	>42.82	92 (66.7)		31.77±6.24		27.41±6.96		29.09±4.27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The Differences of Fatigue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N=138)

Variable	Subscales	M±SD	Min.~Max.
Fatigue		3.27±0.68	1.13~5.0
	Compassion satisfaction	31.41±5.96	15.0~50.0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Compassion fatigue	27.12±6.48	13.0~50.0
	Burnout	29.43±4.53	16.0~40.0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Min: Minimum, Max: Maximum.

**Table 3.** The Correlation between Fatigue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N=138)

Variables		Fatigue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Compassion satisfaction	Compassion fatigue	Burnout
Fatigue		1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Compassion satisfaction	.075 (.380)	1		
	Compassion fatigue	.392 (<.001)	.374 (<.001)	1	
	Burnout	.325 (<.001)	-.482 (<.001)	.376 (<.001)	1

시 재배치되는 등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지 못함에 따라 피로도가 가중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따라서 COVID-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발생을 대비하여 일반병동 간호사들의 간호업무 효율성과 병동별 특성을 고려한 간호업무 지침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대상자의 전문직 삶의 질 수준에 있어, 공감만족 평균점수는 중간수준이었으나 공감피로와 소진의 평균점수는 중간수준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2022년 COVID-19 상황에 국내 경기도 소재 임상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나[21], 2020년 COVID-19 범유행 시기 사우디아라비아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결과[22]보다는 본 연구대상자의 전문직 삶의 질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이는 COVID-19 감염이 범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장기화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으로는 외국보다 국내의 의료인들이 행복지수가 낮고 우울증 의심증상이 많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3]. 그러하기에 간호사들의 낮은 수준의 전문직 삶의 질을 향상할 방안으로 지지체계가 요구되는데[18], 본 연구결과에서도 결혼하지 않은 대상자에 비하여 결혼한 대상자의 공감만족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 결혼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지지가 공감만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결과에서 책임간호사 이상의 직책을 가진 간호사들의 공감만족 평균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간호사의 근무경력에 따라 오를수록 간호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 향상으로 공감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24]와 유사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본 연구대상자의 피로도와 전문직 삶의 질 하위영역 중 공감피로와 소진 간에 있어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선행연구결과 간호사들의 피로도는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정서적 요소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상태로 급성에서 만성까지 다양한 증상으로 발현되며, 에너지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지 않으면 전문직 삶의 질 하위영역인 소진으로 이어짐을 밝히고 있어[25],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상관관계가 이를 재입증하였다. 또한, 간호사들의 공감피로는 소진에 직접 요인으로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14], 간호사들이 지각하는 공감피로는 특히 지지 또는 지원체계가 부족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돌봄 대상의 고통에 관여한 결과로 쉽게 발생할 수 있다[11,12,26]. COVID-19 범유행 상황에서 일반병동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은 평소 간호업무 환경과 달리 급증한 COVID-19 감염 환자 간호를 위한 방호복 또는 보호구 수시 탈부착 및 강화된 감염관리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며, 이는 공감피로와 소진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8]. 따라서 일반병동에서 COVID-19 감염 환자를 동

시에 돌보는 간호사들의 인적, 물리적 근무환경에 대한 사정과 분석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결과에서 대상자들의 전문직 삶의 질 하위영역인 공감만족은 소진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공감만족은 간호조직을 유지하고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 향상에 있어 필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간호사들의 공감피로를 완충하거나 조절할 뿐만 아니라 소진을 회복시키기 때문이다[27].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들의 COVID-19 관련 업무 요인이 공감만족 또는 소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아 그들의 공감만족과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들의 피로도와 공감만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피로도가 공감만족의 원인이 되는 인과관계로 작용하지 않으며 대상자에게서 별개의 의미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28], COVID-19와 관련된 간호업무 파악에 있어 측정변인들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20년 COVID-19 범유행 상황에서 일개 상급종합병원 소속 일반병동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임에 따라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COVID-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발생 시 일반병동 간호사들의 전문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OVID-19 범유행 상황에서 일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일반병동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피로도와 전문직 삶의 질의 수준을 파악하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대상자들의 피로도와 전문직 삶의 질 하위영역인 공감피로 및 소진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그리고 공감만족과 소진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까지도 COVID-19가 지속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과 표본을 확대하여 일반병동 간호사들의 COVID-19 감염 환자 간호 또는 감염관리 업무에 따른 피로도 정도와 전문직 삶의 질 정도를 조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COVID-19 관련 간호업무 수행 시 간호사들의 전문직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요인 탐색이 요구된다.

## ORCID

Jung, Hyun-Sun <https://orcid.org/0009-0009-1344-9548>  
 Shin, Gisoo <https://orcid.org/0000-0001-5508-6065>

## REFERENCES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COVID-19 Weekly epidemiological update; 2023 [cited 2023 February 8]. Available from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adgroupsurvey={adgroupsurvey}&gclid=EAIaIQobChMIOPimgN6F\\_QIVTHZgCh2MOwKLEAAYASAAEgIj9\\_D\\_BwE](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adgroupsurvey={adgroupsurvey}&gclid=EAIaIQobChMIOPimgN6F_QIVTHZgCh2MOwKLEAAYASAAEgIj9_D_BwE)
- Jackson D, Bradbury JC, Baptiste D, Gelling L, Morin K, Neville S, Smith GD. Life in the pandemic: Some reflections on nursing in the context of COVID-19.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20;29(13-14):2041. <https://doi.org/10.1111/jocn.15257>
- Kim YH, Joo HS, Lee JE, Lee MS. Influence of COVID-19-related nursing experience on job stress of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22;31(4):147-56. <https://doi.org/10.5807/kjohn.2022.31.4.147>
- Jin D., Lee G. Experiences of nurses at a general hospital in Seoul which is temporarily closed due to COVID-19.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0;26(4):412-422.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4.412>
- McMillan K, Perron A. Change fatigue in nurses: A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20;76(10):2627-36. <https://doi.org/10.1111/jan.14454>
- Leone SS, Huijbers MJH, Knottnerus JA, Kant IJ. Similarities, overlap and differences between burnout and prolonged fatigue in the working population. *QJM: An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ine*. 2007; 100(10):617-27.
- Moss J. Burnout is about your workplace, not your people. *Harvard Business Review*. 2019;1(1):1-10. <https://doi.org/10.1590/1806-9282.65.11.1356>
- Lluch C, Galiana L, Doménech P, Sansó N.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burnout, compassion fatigue, and compassion satisfaction in healthcare personnel: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published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pandemic. *Healthcare*. 2022;10(2):364. <https://doi.org/10.3390/healthcare10020364>
- Farber JE, Payton C, Dorney P. Life balance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mong baccalaureate nurse faculty.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020;36(6):587-94. <https://doi.org/10.1016/j.profunr.2020.08.010>
- Stamm BH. The ProQOL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Compassion satisfaction and compassion fatigue)[Internet]. Pocatello: 2010[cited 2023 February 8]. Available from: <https://proqol.org/>
- Lee JM, Yeom YH. Effects of work stress, compassion fatigue, and compassion satisfaction on burnout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3;12:689-97.
- Wang S, Liu Y, Wang, L. Nurse burnout: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s predi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2015;21(1):78-86. <https://doi.org/10.1111/ijn.12216>
- Yun S, Ahn SV. Correlation between COVID-19 and nurses' job stress and burnout. *HIRA Research*. 2022;2(2):202-18. <https://doi.org/10.52937/hira.22.2.2.e5>
- Sahin S, Duzgun AA, Unsal A, Kirmizigul IE, Ozdemir A. Assessment of compassion fatigue and empathy levels in nurse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Turkey's case.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2023;1-15. <https://doi.org/10.1007/s10943-023-01749-z>
- Lee HJ, Kim YS, Park I. Calculation of sample size in clinical trials. *Clinics in Shoulder and Elbow*. 2013;16(1):53-57. <https://doi.org/10.5397/CiSE.2013.16.1.53>
- Gu HH. Fatigue syndrome and related factors among nurses participating pandemic influenza patient care: Focused on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aster's thesis]. Seoul: Sunshin Women's University; 2017. pp.1-66.
- Lee JH, Song Y. Nurses' experiences of the COVID-19 crisis.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2021;51(6):689-702. <https://doi.org/10.4040/jkan21160>
- Kang HJ, Lee MH, Lim HN, Lee KH. Influence of infection control fatigue and social support on nurses' burnout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pandemic.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22;28(3):299-307. <https://doi.org/10.22650/JKCN.2022.28.3.299>
- González-Gil MT, González-Blázquez C, Parro-Moreno AI, Pedraz-Marcos A, Palmar-Santos A, Otero-García L, et al. Nurses' perceptions and demands regarding COVID-19 care delivery in critical care units and hospital emergency services. *Intensive and Critical Care Nursing*. 2021;62:102966. <https://doi.org/10.1016/j.iccn.2020.102966>
- Lee SH. Mental health impacts in healthcare workers during COVID-19 pandemic.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21; 60(1):19-22. <https://doi.org/10.4306/jknpa.2021.60.1.19>
- Jo EH, Lee YJ, Lee JH, Hwang SJ. Effects of burnout and social support on clinical nurses'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022;6(2):17-28. <https://doi.org/10.34089/jknr.2022.6.2.17>
- Inocian EP, Cruz JP, Alshehry AS, Alshamlani Y, Ignacio EH, Tumala RB.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nd caring behaviours among clinical nur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21;00:1-13. <https://doi.org/10.1111/jocn.15937>
- Yoo HH, Shin S, Lee JK. Comparison of the graduate medical school student's perception structure about happy doctor by clerkship experienc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7;17(1):262-9. <https://doi.org/10.5392/JKCA.2017.17.01.262>
- Yu F, Raphael D, Mackay L, Smith M, King A. Personal and work-related factors associated with nurse resilience: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019;93:129-40. <https://doi.org/10.1016/j.ijnurstu.2019.02.014>
- Cho H, Steege LM. Nurse fatigue and nurse, patient safety, and organizational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021;43(12):1157-68. <https://doi.org/10.1177/0193945921990>
- Dall'Ora C, Ball J, Reinius M, Griffiths P. Burnout in nursing: A theoretical review. *Human Resources for Health*. 2020;18:1-17. <https://doi.org/10.1186/s12960-020-00469-9>
- Han MY, Lee MS, Bae JY, Kim YS. Effects of nursing practice environment, compassion fatigue and compassion satisfaction on burnout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Administration*. 2020; 21(2):193-202. <https://doi.org/10.1111/jkana.2015.21.2.193>